

수입돼지고기, 시장 확대 '견제' 절실

수입돼지고기 시장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기점으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급기야 돼지고기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무려 19만5천여톤에 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0만여톤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돼지고기 수입량이 왜 이처럼 증가되는 것인가. 크게 대별될 수 있는 것은 수입자유화라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소비시장에서 수입육을 찾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이후 수입업체들 상당수가 돼지고기 수입으로 방향을 전환되면서 수입량이 증가된 것이 주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돈가의 고돈가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 악화와 더불어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수입돼지고기를 찾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량 증가는 결국 돼지고기 소비시장 잠식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자급률이 줄어들고 있음을 엿보게 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산 강세, 수입육 상대적 '수혜'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수입돼지고기 제품이 날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맞춤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입돼지고기 유통시장 현장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가격 측면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주)

<표 1> 최근 5년간 수입돼지고기 수입동향

(단위 : 톤)

부 위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12 중순(누계)	비율(%)
갈 비	4,273	6,137	12,316	24,102	23,360	11.9
뒷 다 리	1,537	285	692	1,203	1,983	1.0
등 심	97	255	370	668	709	0.3
목 심	7,991	4,621	13,713	24,827	39,981	20.5
삼 겹 살	50,817	44,247	64,484	82,962	86,116	44.2
안 심	-	-	-	777	25	0.01
앞 다 리	4,244	4,290	13,350	14,611	28,914	14.8
기 타	2,086	978	3,907	24,444	13,760	7.0
계	71,045	60,813	108,832	173,598	194,851	100

말처럼 국내산 돼지고기가 닦아 놓은 길에서 수입돼지고기가 수혜를 받고 있다.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생산비를 비롯해 여러모로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에 비해 비쌀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입육이 kg당 5천원대의 다소 높은 가격에 수입된다고 가정한다해도 국내산의 경우 지육 kg당 3천200원을 넘어선다면 수입육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중 이러한 가격대가 안정된다면 모를까 성수기인 4, 5, 6월로 접어들면 지육 kg당 4, 5천원대로 급등하는 현실에서 수입육과의 경쟁은 사실상 가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괴물같은 FTA(자유무역) 협정이 칠레에 이어 추진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EU 등 돼지고기 주요 수출국이 포진돼 타결시 최소한 관세인하가 이뤄질 수 밖에 없어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품질 면에서 어떨까. 예전과 같이 앓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들의 부단한 스펙개발과 관심으로 수입되는 각 국의 70여개 브랜드 중 30% 이상이 국내산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향상돼 있다

는 것이 관련업계 평가다.

다시 말해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돼지고기 일부는 국내산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둔갑판매 등 원산지 위반으로 돼지고기가 무려 830건 626.9톤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수입돼지고기 판매가 국내산 판매보다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다름없다는 측면에서 일부 식육판매업소, 음식점 등에서 수입육 사용빈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대상 아닌 유통시장 적극 공략

관심을 끄는 것은 수입육 취급업체들의 마케팅 전략 및 홍보 전략이다. 흔히들 '소비자시대'라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듯이 모든 타깃이 소비자들로 집중돼 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전 국민이 소비자라는 사실이다.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고 힘이 분산되는 느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육 업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특정 다수인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홍보에

<표 2> 수입돼지고기 부위별 유통가격 동향(2007. 1. 15일 현재)

(단위 : kg/원)

종 목	국 가	브 랜 드	가 격	종 목	국 가	브 랜 드	가 격	
목 살	칠 레	아그로(안데스)	5,800~6,000	삼 겹 살	칠 레	아그로(안데스)	5,800~6,000	
	덴 마 크	DS	5,200~5,400			아그로(고원돈)	5,900~6,100	
	캐 나 다	올리멜	5,600~5,800			프 랑 스	버나드	5,300~5,600
목 전 지	미 국	씨보드	3,400~3,600		쿠펠		5,400~5,700	
		스미스필드	3,200~3,400		쏘코파		4,900~5,200	
갈 비	형 가 리	파파이	4,400~4,600		아벨라		4,800~5,100	
		헝가리미트	3,900~4,100		가드	4,900~5,200		
	미 국	팜랜드	4,500~4,600		덴 마 크	후데인	4,400~4,600	
	폴 란 드	애니맥스	3,900~4,100		벨 기 에	럭스	4,800~5,100	
등 뼈	캐 나 다	올리멜	900~1,100		보니맥스	4,800~5,100		
		메이플	900~1,100		오스트리아	마처(진공)	5,100~5,400	
목 뼈		올리멜	1,300~1,400		폴 란 드	애니맥스(EU)	5,600~5,900	
		메이플	1,300~1,400			애니맥스(R)	5,300~5,600	
장 족		칠 레	아그로		2,600~2,800	네덜란드	두메코	5,400~5,700
		형 가 리	델후스		2,400~2,600	미국(냉장)	엑셀	5,700~6,000
로 인 립	스 페 인	줄리아	5,800~6,000	캐나다(냉장)	올리멜	5,600~5,900		
	프 랑 스	쿠펠(10~12cm)	6,800~7,000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식당, 고기집, 레스토랑 등에 직접 맨투맨 영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뜻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지만 “우리 집에 수입육 있으니 먹으러 오세요”라고 선전하는 음식점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

수입업계 관계자들은 또한 “소비자들이 수입육 주세요라고 들어 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유통업체들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직접 홍보가 더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산 소비홍보에 있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울 들어 수입돼지고기 유통시장은 연초부터 불을 뿜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돼지고기 세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미 수출국들의 오판가격은 삼겹살 기준 kg당 4달러 이상으로 지난해 3

달러 후반에 비해 크게 상승돼 있다. 일부 국내 육 가공업체들은 전지 등 원료육의 수입육 확보를 위해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입돼지고기 전시장이 된지 오래며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증에서도 수입육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나와 줘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제는 수입육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외면하거나, 취급하는 업체들을 나쁜 일 하는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좀 더 깊이 있게 수입육의 시장잠식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동**

